

2025 군무원 지역인재 국어

응시번호 _____ 성명 _____

점수 _____ 점

1. 밑줄 친 말의 의미가 같은 것끼리 짝지은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일을 너무 재다가는 아무것도 못 한다.
 ㉡ 어떤 사람인지를 잘 재어 보고 결혼을 결정하게.
 ㉢ 그는 좀 잘했다 싶으면 주위 사람들에게 너무 재서 탈이다.
 ㉣ 저렇게나 입을 재게 놀려 대니 무슨 말을 믿고 할 수가 있겠느냐?
 ㉤ 공부 잘하고 싸움 잘하는 그 아이는 늘 자기가 최고인 양 친구들에게 재고 다닌다.

- ① ㉠, ㉡
 ② ㉡, ㉢
 ③ ㉢, ㉣
 ④ ㉠, ㉤

01

해설 ①

- ㉠, ㉡ 여러모로 따져 보고 헤아리다.(재다 2)
 ㉢ 참을성이 모자라 입놀림이 가볍다.(재다 5)
 ㉣, ㉤ 잘난 척하며 으스대거나 뽐내다.(재다 1)

2. 다음 글에서 밑줄 친 단어의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은?

표준발음은 현실에 존재하는 실제 발음을 바탕으로 정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현실 발음과 차이를 보인다. 그 원인 중 하나는 발음 자체가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점이다. 이것은 표준발음과 현실 발음이 차이 나게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이다.

- ① 그 기사가 신문에 났다.
 ② 이 고장은 예로부터 큰 선비가 많이 났다.
 ③ 이제야 광고 효과가 나기 시작했다.
 ④ 그는 전쟁 기간 동안 시골에서 3년을 나고 다시 서울로 올라왔다.

02

해설 ③

글과 ㉢의 '나다'는 모두 '어떤 작용에 따른 효과, 결과 따위의 현상이 이루어져 나타난다.'의 뜻이다. "결론이 나다", "좀더 능률이 나게 일하는 방법이 없을까?"의 '나다'와 같은 뜻이다.

오답 피하기

- ① 신문, 잡지 따위에 어떤 내용이 실리다.
 ② 인물이 배출되다.
 ④ 철이나 기간을 보내다.

3. 띄어쓰기가 옳지 않은 것은?

- ① 아는 것이 힘이다.
 ② 먹을 만큼 먹어라.
 ③ 네가 뜻한 바를 알겠다.
 ④ 그가 떠난지가 오래다.

03

해설 ④

㉣의 '지'는 어떤 일이 있었던 때로부터 지금까지의 동안을 나타내는 말인 의존 명사이다. 의존 명사는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다. '떠난V지가'로 띄어 써야 한다. '지가'의 '가'는 조사이다.

오답 피하기

- ① '것'은 사물, 일, 현상 따위를 추상적으로 이르는 말인 의존 명사이다.
 ② '만큼'은 앞의 내용에 상당한 수량이나 정도임을 나타내는 말인 의존 명사이다. 참고로 '만큼'은 "집을 대궐만큼 크게 짓다."와 같이 조사로 쓰는 경우가 있으니 구별해야 한다.
 ③ '바'는 앞에서 말한 내용 그 자체나 일 따위를 나타내는 말인 의존 명사이다.

참고 '만큼'

의존 명사(용언의 관형사형 뒤 '그런 정도로', '실컷')

예) 노력한 만큼 / 주는 만큼 / 못했던 만큼

조사(체언 뒤 '그런 정도로')

예) 당신만큼 / 부모님에게만큼은

4. 다음 글의 설명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여름이 가까워졌다. 벼룩, 모기, 파리가 나타날 것이다. 누가 나에게 이렇게 묻는다고 하자. 이 세 가지 벌레 중 어느 것을 제일 사랑하느냐고. 답은 반드시 이 셋 중에서 택해야 하고, 답이 없는 백지를 내놓아서는 안 된다고 한다면, 나는 벼룩이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다.

벼룩은 피를 빨아먹는다. 이 점이 가증스럽기는 하다. 그러나 아무 소리 없이 단도직입적으로 빨아먹는 점은, 솔직하고 시원시원하다. 그런데 모기는 그렇지 않다. 단번에 피부를 쿡 찌르는 면에서는 어느 정도 철저하다고 할 수 있지만, 찌르기 전에 웅웅거리며 일장 연설을 늘어놓는 것은 딱 질색이다. 만일 그 웅웅거리음이, 사람의 피는 자신의 주린 배를 채우기 위해 존재하는 거라는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라면 더더욱 질색이다. 파리는 한참을 웅웅거리다 내려앉아서는 몸의 기름이나 땀을 조금 핥을 뿐이며 간혹 상처나 부스럼을 만나면 횡재를 하기도 한다. 파리는 아무리 좋고 아름답고 깨끗한 것일지라도 가리지 않고 파리똥을 갈기를 좋아한다. 그러나 그들은 땀이나 핥아먹을 뿐이거나 오물을 떨어뜨릴 뿐이어서 감각이 마비된 사람들은 찢리는 듯한 아픔을 느끼지 못한다.

- ① 대조
- ② 분류
- ③ 분석
- ④ 예시

04

해설 ①

이 글은 벼룩, 모기, 파리라는 세 대상의 특성 중 차이점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다. 벼룩의 솔직하고 시원시원한 면모를 모기의 웅웅거리거나 파리의 불결함과 대비시키며 자신의 선호도를 정당화하고 있다. 이는 대조의 설명 방식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부분이다.

오답 피하기

- ② 분류: 분류는 대상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몇 가지 종류로 나누어 설명하는 방식이다. 이 글은 벌레를 종류별로 나누기는 했지만, 그것이 주된 설명 방식이 아니라 각 벌레의 특성을 비교하고 있다.
- ③ 분석: 분석은 대상을 여러 부분이나 요소로 나누어 각 부분의 성질이나 기능을 밝히는 방식이다. 이 글은 벌레의 특정 행동을 세분화하여 설명하기보다는, 벌레 간의 특성 차이를 비교한다.
- ④ 예시: 예시는 일반적인 진술이나 개념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하는 방식이다. 이 글은 벌레들을 사례로 들었지만, 그

들을 통해 어떤 일반적인 개념을 설명하기보다는 벌레들 자체의 차이를 부각한다.

5. 다음 단어를 소리 나는 대로 적은 것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달히다 [다치다]
- ② 대통령 [대:통령]
- ③ 난로 [날:로]
- ④ 국밥 [국뺨]

05

해설 ②

[대:통령]이 올바른 발음이다. '령'의 'ㄹ'이 'ㅇ' 뒤에서 비음화하여 [녕]으로 발음해야 한다. 나머지는 올바른 발음이다.

오답 피하기

- ① 'ㄷ' 뒤에 형식 형태소 '-히-'가 오면 [티]로 축약되어 발음하고, 다시 구개음화 현상으로 인해 [치]로 발음한다.
- ③ 'ㄴ' 뒤에 'ㄹ'이 오면서 유음화하여 'ㄹㄹ'로 발음한다.
- ④ 앞 음절의 받침 'ㄱ'과 뒤 음절의 첫소리 'ㅂ'이 만나면 'ㅃ'이 된소리 [ㅃ]로 발음된다.

참고 구개음화

끝소리가 'ㄷ, ㅌ'인 형태소가 모음 'ㅣ'나 반모음 'ㅈ'로 시작되는 형식 형태소와 만나 'ㄷ, ㅌ'이 [ㅈ, ㅊ]으로 발음되는 현상을 구개음화(口蓋音化)라고 한다.

- ① 형태소 끝소리의 'ㄷ'이 모음 'ㅣ'나 반모음 'ㅈ'로 시작되는 형식 형태소와 결합하면 [ㅈ]으로 발음된다.
예) 해돋이[해도지], 굳이[구지]
- ② 형태소 끝소리의 'ㅌ'이 모음 'ㅣ'나 반모음 'ㅈ'로 시작되는 형식 형태소와 결합하면 [ㅊ]으로 발음된다.
예) 같이[가치], 발이[바치]

6.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집단주의자일수록 자기들끼리 폐쇄적인 음모의 사회를 만든다. 집단 내부에서는 지도자를 정점으로 지배-복종의 관계를 이루며 집단 밖의 타자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며 배제한다. 반면에 개인주의자일수록 개방적인 사회를 만든다. 그들은 신뢰하는 사회적 관계를 만들고 가식 없이 자신을 표현하고 자신을 존중하는 만큼 상대를 배려한다. 근거 있는 권위는 존중하지만, 비합리적 권위주의는 배격한다. 기만적이라기보다는 정직할 것이며, 집단적 공모보다는 공개적 토의를 통해 공적인 결정을 내린다.

- ① 집단주의와 개인주의 문화 비교
- ② 사회 내 집단갈등의 원인 분석
- ③ 집단주의와 개인주의에 대한 정의
- ④ 집단 내에서의 개인의 역할 강조

06

해설 ①

글은 집단주의자와 개인주의자가 각각 어떤 사회적 특성과 행동 양식을 보이는지 상세하게 대비하며 설명한다. 폐쇄성과 개방성, 지배-복종과 상호 존중, 음모와 공개적 토의 등 다양한 측면에서 두 집단의 문화적 차이를 비교하고 있다.

오답 피하기

- ② 글은 집단주의와 개인주의의 특성을 설명하지만, 이들이 사회 내에서 어떻게 갈등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원인 분석은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는다. 단순히 두 집단의 성향을 보여줄 뿐이다.
- ③ 글은 집단주의와 개인주의의 사전적 정의를 내리기보다는, 그들의 특징과 행태를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비교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정의는 포함되어 있지만, 그것이 글의 주된 목적인다고 볼 수 없다.
- ④ 글은 집단주의와 개인주의라는 집단의 특성을 설명하는 것이지만, 그 안에서 개인에게 요구되는 역할을 강조하는 내용은 아니다. 오히려 개인주의자의 경우 개방적 사회를 만든다고 언급하며 개인의 특성이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다.

7. 공공언어를 바로 쓰기 위해 한문 투 부사를 고쳐 쓴 사례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부자는 노름으로 거지반 재산을 탕진하였다. → 부자는 노름으로 거의 모든 재산을 탕진하였다.
- ② 그가 오늘 결근한 것은 필시 사연이 있을 것이다. → 그가 오늘 결근한 것은 틀림없이 사연이 있을 것이다.
- ③ 환경부 장관은 국회 연설에서 자연보호를 누차 강조했다. → 환경부 장관은 국회 연설에서 자연보호를 누누이 강조했다.
- ④ 대다수의 기업은 아무렇지도 않게 직원을 해고하였다. → 거개의 기업은 아무렇지도 않게 직원을 해고하였다.

07

해설 ④

‘대다수(大多數)’는 ‘거의 모두 다’ 또는 ‘아주 많은 수’라는 뜻의 한자어이다. 한자어이며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 ‘절반이 훨씬 넘어 전체량에 거의 가까운 정도의 수효나 분량’을 뜻하는 ‘대부분(大部分)’으로 순화하여 쓴다. ‘거개(舉皆)’는 ‘대부분, 거의 전부’라는 뜻의 한자어이다. 이 단어는 오히려 ‘대다수’보다 더 딱딱하고 일상생활에서 잘 쓰이지 않는 한자어이다. 한문 투 부사를 고쳐 쓰는 취지에 맞지 않는다.

오답 피하기

- ① ‘거지반(去之半)’은 ‘거의 절반’이라는 뜻으로, ‘거의 다’ 또는 ‘대부분’의 의미로 쓰이는 한문 투 부사이다. ‘거의 모든’은 ‘거지반’을 순화하여 풀어쓴 자연스러운 우리말 표현이다.
- ② ‘필시(必是)’는 ‘반드시 그러할 것임이 틀림없이’라는 뜻의 한문 투 부사이다. ‘틀림없이’는 ‘필시’를 순화하여 바꾼 자연스러운 우리말 표현이다.
- ③ ‘누차(累次)’는 ‘여러 번, 여러 차례’라는 뜻의 한문 투 부사이다. ‘누누이(屢屢이/累累이)’도 한자가 섞인 단어이지만 ‘누차’와 같은 뜻이며 더 일상적인 단어이다.

8. ‘토끼와 거북이 경주’ 우화의 교훈과 가장 유사한 의미를 가진 사자성어는?

- ① 난형난제(難兄難弟)
- ② 막상막하(莫上莫下)
- ③ 진퇴양난(進退兩難)
- ④ 우공이산(愚公移山)

08

해설 ④

이 우화는 느리더라도 꾸준히 노력하고 포기하지 않으면 결국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또한, 자만심을 경계하고 끈기의 중요성을 일깨워준다.

우공이산(愚公移山): 어리석은 노인이 산을 옮긴다는 뜻으로, 남들이 보기에 어리석을 정도로 꾸준히 끈기 있게 노력하면 어떤 큰일이라도 이루어낼 수 있음을 비유한다.

거북이가 비록 느리지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나아가 결국 목표를 달성하는 모습과 정확히 일치하는 교훈이다. 꾸준한 노력을 통해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이뤄낸다는 점에서 우화의 주제와 가장 유사하다.

오답 피하기

- ① 난형난제(難兄難弟): 형인지 아우인지 분간하기 어렵다는 뜻으로, 누가 더 낫다고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슷함을 의미한다.
- ② 막상막하(莫上莫下): 위도 아래도 없다는 뜻으로, 우열을 가리기 힘들 만큼 서로 비슷함을 의미한다.
- ③ 진퇴양난(進退兩難): 앞으로 나아가기도 어렵고 뒤로 물러서기도 어렵다는 뜻으로, 어려운 상황에 빠져 이리저리 저러지도 못하는 난처한 처지를 비유한다.

9. (가) ~ (라)의 전개 순서로 가장 자연스러운 것은?

(가) 일부에서는 이러한 의인화 문제에 대해 이용자들이 도구에 불과한 AI를 그 이상의 무엇으로 착각하거나 오해하여 생겨나는 것이라 지적한다. 즉, 윤리 문제라기보다는 교정할 인식의 문제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나) 예를 들어, 보스턴 다이내믹스사가 2015년 자신들이 개발한 개 모양의 사족 보행 로봇 ‘스팟’의 뛰어난 균형 능력을 보이기 위해 개발자가 발로 차도 넘어지지 않는 홍보 동영상을 공개했을 때, 이에 대해 시청자들이 보인 엄청난 도덕적 분노와 비난 사례가 의인화의 대표적인 사례다.

(다) 그러나 관계론적 측면에서 볼 때, 인간과의 교류를 통해 AI의 존재 지위가 정해질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본다면 의인화의 문제를 단순히 교정할 인식의 문제로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라) AI와 관련해 제기되는 전통적인 윤리 문제를 가운데 하나는 AI 로봇의 의인화 문제이다. 이 문제는 AI가 인간의 능력을 모방하기 위해 모색된 과학 기술이라는 점에서 불가피한 결과이다.

- ① (라) - (다) - (나) - (가)
- ② (라) - (가) - (나) - (다)
- ③ (라) - (나) - (가) - (다)
- ④ (라) - (다) - (가) - (나)

09

해설 ③

(라) 문제 제기: 글의 주제인 ‘AI 로봇의 의인화 문제’를 가장 먼저 제시한다. AI와 관련된 여러 윤리 문제 중 하나로 의인화 문제를 언급하며, 이것이 AI 기술의 본질적인 특성상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음을 설명한다. 글의 서론이자 문제 제기 역할을 하므로 가장 먼저 오는 것이 자연스럽다.

(나) 구체적인 사례 제시: (나) 단락은 (라)에서 제기한 의인화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를 제시한다. ‘예를 들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추상적인 개념인 의인화 문제를 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실제 사례(스팟 로봇 사례)를 들어 설명한다. 문제 제기 바로 다음에 예시가 나오는 것은 논리적인 흐름상 적절하다.

(가) 문제에 대한 한 가지 관점 (반박의 대상): (가) 단락은 (라)와 (나)에서 제시된 의인화 문제를 바라보는 한 가지 관점을 소개한다. 즉, 의인화는 AI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사용자의 인식 문제라고 주장하는 견해를 제시하는 것이다. 이는 이후 단락에서 반박될 수 있는 주장이므로, 핵심 주장이 나오기 전에 먼저 제시되는 것이 좋다.

(다) (다) 단락은 (가) 단락의 주장을 ‘그러나’라는 접속 표현을 통해 반박하며, 글쓴이가 생각하는 다른 관점(관계론적 측면)을 제시한다. 즉, 의인화 문제를 단순히 개인의 인식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인간과 AI의 관계 속에서 AI의 존재 지위가 결정될 수 있다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면서 글을 마무리한다. 이는 (가)의 주장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제시하고 글 전체의 논지를 정리하는 역할을 하므로 가장 마지막에 오는 것이 자연스럽다.

10. 밑줄 친 부분의 한자 표기가 옳지 않은 것은?

- ① 프란치스코 교황은 공동체를 위해 지도자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떤 자세(姿勢)로 임해야 하는지를 몸소 보여줬다.
- ② 교황은 '가난한 자의 성자'를 교황명으로 택한 그 뜻 그대로 평생 청빈(淸貧)한 삶을 실천했다.
- ③ 공동체의 발전과 구성원들의 삶에 복무(服務)하는 지도자를 갖고 있는가.
- ④ 이제 추모의 마음은 우리 스스로를 향한 자성(自性)의 거울이 돼야 할 것이다.

10

해설 ④

스스로를 돌아보고 반성한다는 의미의 '자성(自省)'(O)을 써야 한다. '自(스스로 자)', '省(살필 성)'
'자성(自性)'은 '스스로 자(自)'와 '성품 성(性)'이며,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성품' 또는 '불교에서, 만물이 지니고 있는 고유한 본성'을 의미한다.

오답 피하기

- ① 자세(姿 모양 자, 勢 기세 세): 몸을 움직이거나 가누는 모양. 어떤 일에 임하는 태도.
- ② 청빈(淸 맑을 청, 貧 가난할 빈): 성품이 깨끗하고 재물에 대한 욕심이 없어 가난함.
- ③ 복무(服 입을 복, 務 힘쓸 무): 일정한 직무나 임무를 맡아 행함.

11. 다음 시조에서 말하고자 하는 의미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아바님 날 낳으시고 어마님 날 기르시니
두 분 곳 아니면 이 몸이 살아시랴
하날 같은 은덕을 어디다혀 갚아올고

형아 아우야 네 살을 만져 보와
늬손대 타나관대 양재초차 같으스다
한 젓 먹고 길러나이셔 닛마음을 먹디 마라

오늘도 다 새거다 호미메고 가자스라
내논 다 매여든 네 논 점 매여 주마
올 길에 뽕 따다가 누에 먹여 보자스라
- 정철, 「훈민가」에서 -

- ① 근면 생활 강조
- ② 형제간 우의 강조
- ③ 이웃간 상부 상조
- ④ 부모께 효도 강조

11

해설 ①

주어진 시조들은 각각 효도, 형제간 우애, 이웃 간 상부상조라는 유교적 윤리관을 담고 있다. 근면 생활은 시조와 관련이 없다.

참고 작품 해설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를 낳고 길러주셨으니
두 분이 아니었으면 내가 살아있을 수 있었을까
하늘같이 높은 은혜를 어디에 비하여 갚을 수 있을까.

부모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효도 강조이다.

형아, 아우야, 너의 살을 만져 보아라.
누구에게서 태어났기에 얼굴 모습조차 같으냐.
한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랐으니 다른 마음(다툼)을 먹지 마라.

형제간의 우애와 화목 강조이다.

오늘도 날이 다 밝았으니 호미 메고 밭으로 가자.
내 논을 다 매고 나면 네 논도 좀 매어 주마.
오는 길에 뽕을 따다가 누에를 먹여 보자.

이웃이나 공동체 간의 상부상조와 협력 강조이다. ('내 논 다 매면 네 논 매어준다'는 이웃 간의 도움을, '뽕 따다 누에 먹인다'는 공동의 이익을 위한 노동을 의미한다.)

12. 다음은 시간 표현에 사용된 은유를 설명한 것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예시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시간 표현의 은유: 시간은 눈에 보이지 않고 지극히 추상적인 개념이어서 이해하기 힘들다. 그래서 우리는 다양한 은유를 이용하여 시간 표현의 의미를 쉽게 전달한다. 시간 표현과 관련한 은유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1) [시간은 액체이다]

예) 세월이 정말 빠르게 흘렀다.

(2) [시간은 공간이다]

예) 정해진 시간 안에 다 풀어야 한다.

(3) [시간은 돈이다]

예) ()

- ① 어느새 방학이 다가왔다.
- ②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어서 고맙습니다.
- ③ 생각지 못한 사고 때문에 오늘 내에 가기는 어려울 듯하다.
- ④ 정해진 순간이 점점 다가오자 우리는 모두 긴장을 숨길 수 없었다.

12

해설 ②

(1)은 물이 흐르듯이 시간이 흐른다는 뜻이고, (2)는 어떤 공간의 안팎을 말하듯이 시간의 범위를 나타낸다. (3)의 은유는 시간을 아끼고, 사용하고, 투자하고, 심지어 '내어주는' 등 돈처럼 가치 있게 다루는 방식으로 시간을 사용하고 있다. 돈의 속성(할애, 가치 부여)과 가장 잘 연결된다.

오답 피하기

- ① 시간이 마치 사람처럼 '다가오는' 움직임으로 비유했다. 시간의 의인화 또는 구체적인 대상화로 볼 수 있다.
- ③ '시간은 공간이다'와 가깝다. '오늘 내에'는 시간의 범위나 한계를 공간처럼 나타내는 표현이다.
- ④ ①과 같다. '다가오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시간을 움직이는 실제로 표현하고 있다.

13. 다음 글에서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언어변이는 신형의 출현에서 촉발된다. 즉 이전의 표현 방식과 새로운 표현 방식이 공존하고 있는 상태에서 언어변이가 나타난다는 말이다. 어떤 언어변이는 언어 사용자의 나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이와 같은 언어변이는 크게 연령 단계에 의한 것과 세대차에 의한 것으로 나뉜다. 전자는 일정한 나이에 도달하면 해당 연령 단계에 알맞은 어형을 사용하게 됨으로써 연령층별로 언어변이를 보이는 경우며, 후자는 젊은 시절에 익힌 언어 습관을 나이 들어서도 변함없이 유지하게 됨으로써 세대별로 언어변이를 보이는 경우다. 후자와 달리 전자는 언어변화로 귀결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두 유형의 언어변이는 구분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손아래의 특정 상대에게 만나자고 할 때 청소년층에서는 "야, 나 좀 봐." 하고 노년층에서는 "자네, 나 좀 보세." 하는 것은 연령 단계에 의한 언어변이라 할 수 있으며, '잔'을 셀 때 노년층 세대는 '석잔, 녀 잔' 하고 청소년층 세대는 '세 잔, 네 잔' 하는 것은 세대차에 의한 언어변이라 할 수 있다. 전자의 경우, "야, 나 좀 봐." 하던 청소년들이 60대 이상의 어른이 되면 "자네, 나 좀 보세."라는 말을 쓸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럴 여지가 거의 없는 후자와 구별되는 것이다. 후자의 경우, '잔' 등을 세는 수관형사로 '석, 녀'가 사라져감을 나타내는 진행 중인 언어변화의 한 예라 할 만하다.

- ① 청소년층에서 '잘 지내'라고 하고, 노년층에서 '건강하시게'라고 하는 것은 세대차에 의한 언어변이라고 할 수 있다.
- ② 청소년층에서 '아빠, 엄마'라고 하고 노년층에서 '어머니,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연령 단계에 의한 언어변이라고 할 수 있다.
- ③ 청소년층에서 '덤벼, 남겨'라고 하고 노년층에서 '뎀벼, 뎌겨'라고 하는 것은 연령 단계에 의한 언어변이라고 할 수 있다.
- ④ 청소년층에서 '거지, 어른'이라고 하고 노년층에서 '그:지, 으:른'이라고 하는 것은 연령 단계에 의한 언어변이라고 할 수 있다.

13

해설 ②

연령 단계 변이는 개인이 나이 들면서 언어가 바뀌는 것이고, 세대차 변이는 특정 세대가 평생 같은 언어를 써서 세대 간 차이가 생기는 것이다. 청소년층이 부모를 '아빠, 엄마'라고 부르

다가, 성인이 되어 결혼을 하고 본인도 부모가 되거나 나이가 들면서 ‘어머니, 아버지’와 같은 더 격식 있는 호칭을 사용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개인이 나이를 먹으면서 호칭 습관이 변하는 것이므로, 연령 단계에 의한 언어 변이의 특징(개인의 나이에 따라 언어 습관이 변함)이다.

오답 피하기

① ‘잘 지내’와 ‘건강하시게’는 상황과 상대방에 따라 사용하는 높임말과 낮춤말의 차이이거나, 연령에 따른 어법 선택의 차이이다. 청소년이 나이가 들어 노년층이 되면 건강이 중요한 사항이므로 ‘건강하시게’와 같은 표현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연령 단계에 의한 언어 변이이다.

③ ‘데미다’와 ‘데미다’, ‘남기다’와 ‘남기다’는 표준어 규범에서 벗어난 발음이나 비표준어 어형의 차이이다. 특정 세대가 특정 비표준어를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다음 세대는 표준어를 사용하는 경우라면 세대차에 의한 언어 변이이다. 노년층이 젊은 때부터 ‘데미다, 남기다’를 사용했고 나이 들어서도 유지하는 경우이다.

④ ‘거지’와 ‘그:지’, ‘어른’과 ‘으:른’은 장음(長音) 유무의 차이와 ‘ㅣ’와 ‘ㅡ’의 차이이다. 현대 국어에서 장음은 점점 소실되는 경향을 보인다. ‘ㅣ’와 ‘ㅡ’를 달리 달리 쓰는 것도 노년층이 과거의 발음 습관(장음 포함)을 유지하고 청소년층은 이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젊은 시절 익힌 언어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므로 세대차에 의한 언어 변이에 해당한다.

참고 제시문 요약

- 언어 변이의 촉발: 신형의 출현으로 이전 표현과 새 표현이 공존할 때 발생한다.
- 연령 단계에 의한 언어 변이: 일정한 나이가 되면 해당 연령 단계에 맞는 어형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이다. 개인이 나이가 들면서 언어 습관이 변할 수 있다.(예: “야, 나 좀 봐.” 하던 청소년이 나중에 “자네, 나 좀 보세.”라고 말할 가능성) 언어 변화로 귀결되지 않을 수 있다.
- 세대차에 의한 언어 변이: 젊은 시절에 익힌 언어 습관을 나이 들어서도 변함없이 유지하는 경우이다. 특정 세대가 고유한 언어 습관을 유지하여 세대 간의 언어 차이가 발생한다.(예: ‘석 잔, 녁 잔’ vs ‘세 잔, 네 잔’) 언어 변화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예: ‘석, 녁’의 소멸)

14. 다음 시에 드러나는 화자의 마음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나무들은

난 대로가 그냥 집 한 채.
새들이나 벌레들만이 거기
깃들인다고 사람들은 생각하면서
까맣게 모른다 자기들이 실은
얼마나 나무에 깃들여 사는지를!

- 정현종, 「나무에 깃들여」 -

- ① 허무주의
- ② 인간주의
- ③ 평화주의
- ④ 공생주의

14

해설 ④

‘나무에 깃들여’라는 제목은 인간과 자연의 밀접한 관계를 상징적으로 나타낸다. ‘깃들이다’는 단어는 보통 새나 동물이 자연의 일부로 살거나 머무는 것을 의미한다. 이 제목은 인간이 나무와 같은 자연 속에서 깊숙이 살아가고 있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즉, 인간이 자연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는 의미를 전달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이 시는 사람들의 자연과의 관계를 비판적으로 바라본다. 나무를 단순한 자연물로 보는 사람들과 달리, 화자는 사람들이 사실상 자연에 의존해 살아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사람들은 나무나 자연과 끊을 수 없는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자연 속에서 깊이 살아가고 있다는 점을 드러낸다. 시는 인간이 자연(나무) 없이는 살 수 없으며, 모든 생명체가 서로에게 의존하며 살아가는 상호 의존적 관계를 깨달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따라서 시에 드러나는 화자의 마음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공생주의이다.

- 공생주의: 서로 다른 생명체나 개체가 함께 살아가며 상호 이익을 주고받는 관계를 중시하는 사상.

오답 피하기

- ① 허무주의: 삶의 의미나 가치가 없다고 보는 사상.
- ② 인간주의: 인간을 모든 가치의 중심에 두는 사상.
- ③ 평화주의: 폭력을 반대하고 평화를 추구하는 사상.

15. 다음 글에서 괄호 안에 들어갈 단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우리는 인공지능의 본질을 파악하여 투명하고 책임감을 가질 수 있게 그리고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도록 감시하고 요구해야 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미디어를 만드는 것도 이용자의 힘입니다. 앞으로 인공지능은 미디어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올 겁니다. 여러분이 미디어의 생산과 유통에 참여할 기회도 커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공지능의 ()을(를) 이해하는 소비자가 되는 것이 먼저입니다.

- ① 생명 ② 장점
③ 가능성 ④ 그림자

15

해설 ④

글은 인공지능에 대한 경계와 책임 의식을 강조한다. “우리는 인공지능의 본질을 파악하여 투명하고 책임감을 가질 수 있게 그리고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도록 감시하고 요구해야 합니다.” 인공지능이 가져올 수 있는 부정적인 측면(프라이버시 침해 등)에 대한 우려와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한다. ‘감시하고 요구해야 한다’는 내용은 인공지능의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 즉 문제점이나 어두운 면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답 피하기

- ① 생명: 인공지능의 생명은 글의 주제와 관련이 없다.
② 장점: 글의 앞부분에서 인공지능의 문제점을 ‘감시하고 요구해야 한다’고 말하므로, 장점을 이해하는 것만이 강조될 수는 없다.
③ 가능성: 인공지능의 ‘생산과 유통 참여’와 같은 긍정적 가능성이 언급되기는 하지만, 전반적인 글의 흐름, 특히 감시하고 요구해야 한다는 표현과 연결될 때 가능성만을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16. 표준어 사정 원칙에 따른 표기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끄나풀’과 ‘끄나불’은 ‘끄나풀’을 표준어로 삼는다.
② ‘분침’과 ‘푼침’은 ‘분침’을 표준어로 삼는다.
③ ‘강남콩’과 ‘강낭콩’은 ‘강낭콩’을 표준어로 삼는다.
④ ‘둘째’와 ‘두째’는 ‘둘째’를 표준어로 삼는다.

16

해설 ③

복수 표준어와 단수 표준어 문제이다. ‘강낭콩’(O)이 표준어이고 ‘강남콩’(X)은 표준어가 아니다.

17. 다음 글의 내용에 가장 부합하는 것은?

자본주의 세상에서의 경제 활동도 유전자의 번식 경쟁이라는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다. 경제학에서 신고전학파 학자들이 제시한 ‘한계효용’이라는 개념이 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처음에는 효용감이 크지만, 그 행동을 반복할수록 효용감이 점점 감소한다. 이를 ‘한계효용 체감(감소)의 법칙’이라고 말한다. 한계효용 이론에서는 소비자가 자신의 한계효용이 0에 이르면 소비를 멈추는 합리적이고 독립적인 개인이라고 가정하지만, 생물학적 소비자(유전자)는 결코 이렇게 행동하지 않는다. 유전자는 무한한 번식 욕구와 경쟁 심리를 지닌 비합리적인 사회적 개체들이다. 유전자는 자원이 허락한다면 짝짓기 횟수와 자식의 수를 더 늘리고자 하고, 자신이 가진 풍부한 자원을 상대방에게 과시하는 형태로 ‘번식 경쟁’이 일어난다.

원시 사회에서는 수컷들이 자신과 부양가족이 필요한 것 이상으로 더 많은 사냥을 해서 주변에 나누는 식으로 번식 능력을 과시했다. 농경 사회로 접어든 이후로는 잉여가치의 획득을 통해 본격적인 과시적 소비와 신분 향상의 추구가 시작됐다. 현대 사회에 와서는 잘 노는 것이 부와 능력을 드러내는 상징이 됐다. 이는 현대인들이 실제로 번식은 하지 않으면서 번식을 목표로 발동되는 가열한 경쟁 심리에 쫓겨 발버둥치는 괴상한 삶을 살고 있다는 의미이다.

- ① 유전자는 한계효용체감의 법칙을 따르지 않는다.
② 현대인들은 경쟁에 쫓기고 싶지 않아 번식을 포기하고 있다.
③ 한계효용 이론에서는 소비자를 비합리적인 사회적 주체로 간주한다.
④ 현대 사회의 과시적 여가와 소비 행위는 생물학적 소비자의 합리적 경쟁 심리에서 비롯된다.

17

해설 ①

글은 유전자(생물학적 소비자)가 경제학의 한계효용 체감 법칙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무한한 욕구와 경쟁 심리를 가진다는 점을 강조하며, 현대인의 삶이 이러한 유전적 경쟁 심리에 지배받는 비합리적인 양상을 보인다고 설명한다. “생물학적 소비자(유전자)는 결코 이렇게 행동하지 않는다.”는 앞서 설명한 소비자가 자신의 한계효용이 0에 이르면 소비를 멈추는 합리적이고 독립적인 개인과 같이 행동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유전자가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을 따르지 않고 무한한 욕구를 지닌다는 글의 핵심 주장과 일치한다.

오답 피하기

- ② 현대인들이 실제로 번식은 하지 않으면서 번식을 목표로 하

는 가열한 경쟁 심리에 쫓겨 발버둥친다고 설명한다. 이는 경쟁 때문에 번식을 포기한다는 것이 아니라, 번식하지 않으면서도 번식을 위한 본능적 경쟁 심리에 시달린다는 의미이다. 경쟁에 쫓기고 싶지 않아서 번식을 포기한다는 내용은 지문에 언급되지 않았다.

③ 한계효용 이론에서 소비자를 합리적이고 독립적인 개인으로 가정한다고 명시한다. 오히려 유전자를 비합리적인 사회적 개체로 설명한다.

④ 유전자를 무한한 번식 욕구와 경쟁 심리를 지닌 비합리적인 사회적 개체들이라고 정의한다. 합리적이라는 표현은 유전자 즉 생물학적 소비자의 특성과 맞지 않는다. 또한, 현대 사회의 삶을 괴상한 삶이라고 표현하며 비합리적임을 암시한다.

18. 밑줄 친 부분의 맞춤법이 옳지 않은 것은?

- ① 네가 어떤 것을 선택하든지 결과는 달라지지 않는다.
- ② 그 집에서 누가 살았던지 기억납니까?
- ③ 나의 바램은 우리가 행복한 삶을 누리는 것이다.
- ④ 오래 입은 셔츠가 흐릿하게 색이 바랬다.

18

해설 ③

‘생각이나 바람대로 어떤 일이나 상태가 이루어지거나 그렇게 되었으면 하고 생각하다’의 뜻인 ‘바라다’의 명사적 활용은 ‘바람’(O)이 올바른 표기이다. ‘바라다’를 흔히 ‘바램’(X)이라고 하는 일이 있지만 이는 잘못된 표기이다. 표준어 규정 제11항에서 “다음 단어에서는 모음의 발음 변화를 인정하여, 발음이 바뀌어 굳어진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라고 규정하며, ‘바라다’를 표준으로 삼고, ‘바래다’를 버린다고 설명했다.

오답 피하기

①, ② 선택에는 ‘-든지’, 과거에 대한 의문에는 ‘-던지’를 쓴다. ‘-든지’는 나열된 동작이나 상태, 대상들 중에서 어느 것이든 선택될 수 있음을 나타내거나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중에서 어느 것이 일어나도 뒤 절의 내용이 성립하는 데 아무런 상관이 없음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이다. 가령 “집에 가든지 학교에 가든지 해라./노래를 부르든지 춤을 추든지 간에 네 맘대로 해라.”와 같이 쓴다. 그러나 ‘-던지’는 막연한 의문이 있는 채로 그것을 뒤 절의 사실이나 판단과 관련시키는 데 쓰는 연결 어미이다. 가령 “얼마나 춥던지 손이 곱아 펴지지 않았다./아이가 얼마나 밥을 많이 먹던지 배탈 날까 걱정이 되었다.”와 같이 쓴다.

④ ‘별이나 습기를 받아 색이 변하다.’의 뜻은 ‘바래다’(O)이다.

19. 다음 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어느 머언 곳의 그리운 소식이기에
이 한밤 소리 없이 흘날리느뇨

처마 밑에 호롱불 여위어가며
서글픈 옛 자취 양 흰 눈이 내려

하이얀 입김 절로 가슴이 메어
마음 허공에 등불을 켜고
내 홀로 밤 깊어 뜰에 나리면
머언 곳에 여인의 옷 벗는 소리

- 김광균, 「설야」에서 -

- ① 공감각적 심상이 나타난다.
- ② 영탄법과 비유법이 활용되었다.
- ③ 현대 문명에 대한 비판이 나타난다.
- ④ 화자의 애상적인 정조가 나타난다.

19

해설 ③

이 시는 눈 내리는 밤의 정경과 그 속에서 느끼는 화자의 내면적 정서(그리움, 쓸쓸함)를 주로 다룬다. 현대 문명이나 사회 현상에 대한 비판적인 내용은 이 시와 관련이 없다. 김광균 시인이 모더니즘 계열의 시인으로 현대 도시 문명에 대한 감각적 이미지를 자주 다루었으나, 이 시에서는 그러한 비판적 인식이 드러나지 않는다.

오답 피하기

- ① ‘머언 곳에 여인의 옷 벗는 소리’에서 눈이 내리는 모습의 시각적 심상이 ‘옷 벗는 소리’인 청각적 심상으로 전이되었다. 공감각적 심상은 감각의 전이와 같은 말이다.
- ② ‘흘날리느뇨’에서 영탄법이 사용되었다. ‘서글픈 옛 자취 양’에서 ‘눈’을 직유법으로 비유하였다.
- ④ ‘그리운 소식’, ‘서글픈 옛 자취’, ‘하이얀 입김 절로 가슴이 메어’, ‘내 홀로 밤 깊어 뜰에 나리면’ 등의 표현에서 화자의 고독하고 슬픔이 깃든 애상적 정조가 분명하게 드러난다.

참고 김광균, 「설야」

- 설명: 「설야」는 아름다운 겨울밤의 풍경을 배경으로 화자의 내면적 그리움과 쓸쓸함이라는 애상적 정서를 감각적으로 표현한 작품이다.
- 성격: 회화적, 감각적, 애상적, 시각적, 주지적
- 제재: 눈
- 주제: 눈 내리는 밤의 감회, 눈 오는 밤의 추억과 애상

20. 다음 글의 밑줄 친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해 추가해야 하는 전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모든 바이러스는 유기체의 살아 있는 세포 안에서만 살 수 있다.
 - 박테리아 α는 유기체의 살아 있는 세포 안에서만 살 수 있다.
- 따라서 박테리아 α는 바이러스이다.

- ① 유기체의 살아 있는 세포 안에서만 살 수 있는 모든 것은 바이러스이다.
- ② 어떤 바이러스는 유기체의 살아 있는 세포 안에서만 살 수 있다.
- ③ 유기체의 살아 있는 세포 안에서 살 수 없는 바이러스도 있다.
- ④ 어떤 박테리아는 유기체의 살아 있는 세포 안에서만 살 수 있다.

20

해설 ①

- ‘바이러스’ = A
 - ‘유기체의 살아 있는 세포 안에서만 살 수 있다’ = B
 - ‘박테리아 α’ = C
- [전제 1] 모든 바이러스는 유기체의 살아 있는 세포 안에서만 살 수 있다. (A → B)
- [전제 2] 박테리아 α는 유기체의 살아 있는 세포 안에서만 살 수 있다. (C → B)
- [결론] 따라서 박테리아 α는 바이러스이다. (C → A)
- ‘C → B’ 뒤에 ‘B → A’라는 전제를 얻을 수 있다면 ‘C → B → A’가 되기 때문에 ‘C → A’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 [추가해야 하는 전제] ‘C → B’는 유기체의 살아 있는 세포 안에서만 살 수 있는 모든 것은 바이러스이다.

오답 피하기

- ② 전제 1에서 ‘모든 바이러스’라고 했으므로, ‘어떤 바이러스’는 이미 포함되는 내용이다.
- ③ 전제 1(모든 바이러스는 유기체의 살아 있는 세포 안에서만 살 수 있다)과 모순된다.
- ④ 이 전제는 박테리아 α에 대한 진술(전제 2)을 일반화한 것에 불과하며, 박테리아 α가 바이러스라는 결론을 이끌어내는 데 필요한 연결 고리를 제공하지 못한다.

21. 다음 글을 읽고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사신을 따라서 중국에 들어가는 사람에겐 모름지기 부르는 호칭이 있다. 역관은 종사(從事)라 부르고 군관은 비장(裨將)이라고 부르며, 나처럼 한가롭게 유람하는 사람은 반당(伴當)*이라고 부른다. 소어(蘇魚)라는 물고기를 우리나라 말로는 반당(盤當, 밴댕이)이라고 하는데, 반(盤)과 반(伴)의 음이 서로 같아서이다. 압록강을 건너면 소위 반당은 은빛 모자의 정수리에 푸른 깃을 달고 짧은 소매에 가벼운 복장으로 차림새를 갖추었다. 그러면 길가의 구경꾼들은 이를 가리켜 문득 ‘새우’라고 부르는데, 무엇 때문에 새우라고 부르지는 모르겠으나 아마도 무장한 남자를 부르는 별칭인 것으로 보인다. 지나가는 마을의 꼬맹이들은 떼를 지어 몰려다니며 일제히 “가오리 온다, 가오리 온다” 하고 외치며, 더러는 말꼬리를 따라 다니며 다투어 외치는 바람에 귀가 따가울 정도다. ‘가오리 온다’는 말은 ‘고려인이 온다’는 뜻이다. 나는 웃으며 동행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세 가지 물고기로 변하고 마는구먼” 하니, 여러 사람들이 “세 가지 물고기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하고 묻는다. 내가 “조선의 길에서는 밴댕이라고 부르니 이는 소어라는 물고기요, 압록강을 건너 이래로는 새우라고 부르니 새우도 역시 어족이고, 오랑캐 아이들이 떼를 지어서 가오리라고 외치니 이는 흥어가 아니던가?” 하니 사람들이 모두 한바탕 웃는다.

* 반당(伴當): 사신의 수행원

- 박지원, 「열하일기」에서 -

- ① ‘새우’는 ‘나’의 옷차림새를 보고 부르는 말이다.
- ② ‘밴댕이’, ‘가오리’는 이국인들의 눈에 비친 ‘나’의 모습이다.
- ③ 서로 다른 언어들 사이의 우연적 요소를 해학의 소재로 삼고 있다.
- ④ ‘밴댕이’를 반당(盤當)이라고 한 것은 한자의 소리를 빌려 적은 것이다.

21

해설 ②

작가가 중국 사행길에 오르면서 겪는 다양한 호칭 변화와 그에 얽힌 해학을 담고 있다. 핵심은 작가 자신(반당)을 지칭하는 호칭들이 상황에 따라 어떻게 변하고, 그 의미가 어떻게 해석되는지 파악하는 것이다. ‘밴댕이(반당, 盤當)’는 조선(우리나라 말)에서 작가(반당, 伴當)를 부르는 호칭과 소리가 같아서 연결 지은 물고기 이름이다. 즉, 조선 사람들이 스스로를 지칭하는 호칭과 관련된 유희이다. ‘가오리’는 중국(오랑캐 아이들)에서 ‘고려인’을 부르다가 발음이 비슷하여 생긴 호칭이다. ‘가오리’는

이국인(중국인)의 눈에 비친 작가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밴댕이’는 이국인(중국인)의 시선이 아니다.

오답 피하기

- ① “(압록강을 건넌 후) 반당은 은빛 모자의 정수리에 푸른 것을 달고 짧은 소매에 가벼운 복장으로 차림새를 갖춘다. 그러면 길가의 구경꾼들은 이를 가리켜 문득 ‘새우’라고 부르는데” 작가의 옷차림새를 보고 새우라고 불렀다.
- ③ 조선어 ‘반당(伴當)’과 ‘반당(盤當, 밴댕이)’의 음이 같은 점, 그리고 중국 아이들의 발음인 ‘고려인’과 ‘가오리’의 음이 비슷하여 혼동되는 점 등 언어유희를 통해 재미와 웃음(해학)을 유발하고 있다.
- ④ “소어(蘇魚)라는 물고기를 우리나라 말로는 반당(盤當, 밴댕이)이라고 하는데, 반(盤)과 반(伴)의 음이 서로 같아서이다”라고 하였다. 여기서 ‘반당(盤當)’은 소어를 표기하는 한자어이며, 이는 한국어 발음인 ‘밴댕이’를 한자음으로 표기한 것이다. 한자의 소리를 빌려 우리말 물고기 이름을 적은 것이다.

22. 다음 글에서 ㉠~㉣에 들어갈 접속 부사로 가장 적절한 것은?

앞으로 미래를 전망할 때는 두 가지를 유의해야 한다. 사람의 모든 의사결정과 행동은 미래의 변화를 전제로 한다. 국가와 기업의 투자나 정책도 그러하고, 개인도 마찬가지다. (㉠) 의사결정은 미래를 얼마나 치열하게 깊이 생각했느냐가 승패를 가른다. 여기까지는 과거와 차이가 없다. (㉡) 대전환을 고려하지 않고 과거 방식대로 미래를 예측하면 모두 실패할 것이다. 전장의 ‘판’이 바뀐 것을 감안해야 한다. 통상 전투가 치열할수록 눈앞의 전투에만 집착한다. (㉢) 전투의 승패를 가늠하는 것은 눈앞의 전투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모습이다.

- ① ㉠ 그런데, ㉡ 따라서, ㉢ 그리고
② ㉠ 그러나, ㉡ 따라서, ㉢ 그런데
③ ㉠ 따라서, ㉡ 그러나, ㉢ 그러나
④ ㉠ 그리고, ㉡ 그러나, ㉢ 따라서

22

해설 ③

㉠ 앞에서 미래 전망의 중요성과 보편성을 언급했다. ㉠ 뒤에서 “의사결정은 미래를 얼마나 치열하게 깊이 생각했느냐가 승패를 가른다.”라는 문장은 미래 전망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였다. 두 문장 모두 미래를 생각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뒷 문장이 앞 문장의 내용을 인과적으로 보충하거나 결론을 내는 관계이다. ‘따라서’가 가장 적절하다.

㉡ 앞은 이전까지의 내용이 과거에도 적용되는 보편적 진리임을 언급했다. ㉡ 뒤는 과거와 달리 대전환을 고려해야 함을 강조하며, 앞 문장과 대조되는 새로운 주장 제시했다. 앞 문장과 뒷 문장이 대조적인 내용을 연결한다. ‘그러나’가 가장 적절하다.

㉢ 앞은 일반적인 전투 상황의 경향 설명했다. ㉢ 뒤는 앞 문장의 통념과 대조되는 실제 승패의 기준을 제시했다. 앞 문장에서 나타난 일반적인 사고방식(눈앞의 전투에 집착)과 실제적인 승패 결정 요인(사회 전체의 모습) 사이에 역접의 관계가 성립한다. 따라서 ‘그러나’가 가장 적절하다.

23. 다음 글의 ㉠과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BTS와 K-pop으로 상징되는 한류는 이제 한국의 이미지를 높이고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려는 (㉠)에 큰 주춧돌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은(는) 문자 그대로 외국 정부가 아니라 공공, 혹은 공중을 대상으로 펼치는 외교 활동을 말하고 (㉢) 파위를 중시하는 오늘날 국제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되었다. 그 개념도 많이 발전하여 외교를 행하는 주체도 이제는 정부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기업, 일반인 등 민간 분야를 포함하고 있다.

- ① ㉠ 한국 문화, ㉡ 하드
② ㉠ 공공 외교, ㉡ 소프트
③ ㉠ 공공 외교, ㉡ 하드
④ ㉠ K-culture, ㉡ 소프트

23

해설 ②

- ㉠ “(㉠)은(는) 문자 그대로 외국 정부가 아니라 공공, 혹은 공중을 대상으로 펼치는 외교 활동을 말한다”를 정리하면 ㉠은 ‘공공 외교 활동’이다. ‘한국 문화’나 ‘K-culture’는 한류 자체를 의미하거나 한류의 한 종류를 의미할 수 있으나, 빈칸 뒤의 ‘외교 활동’이라는 정의에 직접 관련이 없다.
- ㉡ 글의 전체적인 내용은 K-pop과 같은 문화적 요소를 통해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고 외교 활동을 펼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군사력이나 경제력과 같은 물리적 힘(하드 파워)이 아니라, 문화적 매력이나 가치 등을 통한 영향력(소프트 파워)과 관련이 깊다. 특히 외교를 행하는 주체가 정부뿐 아니라 민간 분야를 포함한다는 내용은 강제력이 아닌 매력을 통한 영향력, 즉 소프트 파워를 중시하는 현대 외교의 특징을 보여준다. ‘하드 파워’는 보통 군사력이나 경제력을 의미한다.

24. 다음 시에 드러나는 화자의 정서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흙길이었을 때 언덕길은
깊고 깊었다.
포장을 하고 난 뒤 그 길에서는
깊음이 사라졌다.

숲의 정령들도 사라졌다.

깊은 흙
얕팍한 아스팔트.

짐승스런 편리
사람다운 불편.

깊은 자연
얕은 문명.

- 정현종, 「깊은 흙」-

- ① 평화에 대한 갈구
- ② 편리함이 갖는 양면성
- ③ 문명화가 갖는 비인간성
- ④ 자연과 생명의 중요성

24

해설 ①

시는 자연의 상실과 문명화의 문제점을 다루고 있지만, 평화라는 직접적인 주제나 평화에 대한 갈구의 정서는 드러나지 않는다. 시는 인간과 자연의 관계, 그리고 문명이 가져오는 본질의 상실에 집중되어 있다.

오답 피하기

- ② '짐승스런 편리 / 사람다운 불편'이라는 구절에서 알 수 있듯이, 문명이 가져온 편리함이 단순히 긍정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성을 훼손하는 '짐승스러운' 측면을 가질 수 있다는 양면성을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 ③ '깊음이 사라졌다', '숲의 정령들도 사라졌다', '얕팍한 아스팔트', '짐승스런 편리' 등의 표현을 통해 문명화가 자연의 본질을 파괴한다고 비판한다. 인간의 삶을 피상적이고 본능적인 것으로 만들며, 결국은 사람다운 가치를 잃게 만드는 비인간적인 측면을 비판하고 있다.
- ④ '깊은 흙', '깊은 자연'과 대비되는 '얕팍한 아스팔트', '얕은 문명'이 대조되어 자연이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가치와 생명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숲의 정령들'의 사라짐에 대한 안타까움도 자연과 생명의 소중함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참고 정현종, '깊은 흙'

이 시의 주제는 문명화로 인해 훼손되는 자연의 본질과 인간성의 상실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다. 화자는 흙길이 가진 '깊음'과 '숲의 정령'이 아스팔트길이 된 후 사라지는 현상을 통해, 편리함을 추구하는 문명이 오히려 소중한 가치를 잃게 함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25. 다음 글의 집필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빈집 확산은 정부가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처해야 하는 문제다. 우물쭈물하는 사이 피해가 공동체 전체로 확산하고, 정상화를 위한 비용도 늘어나기 때문이다. 특정 지역에 빈집이 일정 수준 이상 많아지면 주택소유자를 찾기 어렵거나 무허가 주택이라 하더라도 철거나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 문제를 먼저 겪은 선진국처럼 오랜 기간 집을 비워둔 소유주에게 벌금 등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검토해봐야 한다.

- ① 트렌드에 대한 기술
- ② 사안에 대한 주장
- ③ 사실에 대한 설명
- ④ 개인적 느낌 표현

25

해설 ②

필자는 빈집 확산이라는 사안에 대해 정부의 빠르고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며, 그를 위한 구체적인 제도적 개선 방안까지 제시하고 있다.

오답 피하기

- ① 글은 빈집 확산이라는 사회 현상을 다루지만, 단순히 트렌드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강하게 촉구한다.
- ③ 글은 빈집 문제의 심각성을 언급하지만, 그 목적이 단순히 사실을 설명하는 데 있지 않다. 문제 해결을 위한 필자의 의견 제시가 주를 이룬다.
- ④ 필자의 감정이나 개인적인 느낌보다는 빈집 문제의 사회적 심각성과 해결 방안에 대한 논리적 주장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2025년 군무원 지역인재 모집 국어 총평

1. 총평

2025년에 처음으로 군무원 시험에도 지역인재 모집이 도입되었습니다. 국어, 영어, 한국사로 선발하고, 시험 문제는 일반군무원과 같이 25문제이고 4지선다 형태입니다. 지문과 선택지의 길이가 짧고 문제의 유형도 단순하다. 복합적인 사고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일부 영역에서만 문제를 출제한 것은 아닙니다. 문법, 어문규정, 어법, 독해, 추론, 논리 등 일반군무원 시험에서 다루는 모든 영역의 범위를 다루고 있습니다. 매년 하반기에 실시하는 일반공무원 지역인재와도 맥락이 같습니다. 문제 유형은 단순하지만 범위는 넓게 출제했습니다.

이번 군무원 국어 지역인재 시험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풀기에 무리가 없는 적절한 수준으로 출제되었습니다. 고교 교육과정의 핵심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면서도, 단순 암기에 그치지 않고 응용력과 사고력을 평가하려는 의도가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지문과 문항의 길이가 적당하여 시험 시간 안에 충분히 해결 가능한 구성이었습니다. 단순 지식형 문제보다는 언어 능력, 추론력, 논리적 독해력을 요구하는 문항이 다수 출제되어, 출제 방향이 '실질적 언어 사용 능력'을 향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2. 문항 유형별 분석

유형	문항 번호	특징 및 평가 요소
어휘·어법	1~5, 7, 8, 10, 16, 18	문맥 속 다의어, 띄어쓰기, 발음, 공공언어, 사자성어, 표준어, 맞춤법 등 언어지식과 적용 능력을 고루 평가하는 문제입니다.
독해(정보 파악/추론)	6, 9, 13, 17, 20, 21, 22, 23, 25	다양한 분야의 글을 바탕으로 주제 파악, 논리적 순서 배열, 추론 등 독해와 사고력을 평가합니다.
설명 방식/담화	4, 22, 23	글의 전개 방식, 접속 부사, 개념 파악 등 문단 구조나 논리 흐름 이해를 요구합니다.
문학(시·시조)	11, 14, 19, 24	시조, 현대시를 바탕으로 화자의 정서, 표현 기법, 주제를 이해하는 문항입니다.
논리/비판적 사고	12, 20	은유 구조 이해, 전제-결론 논증 파악 등 비판적 사고와 논리 훈련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통합형 사고	15	AI, 미디어와 같은 시사 이슈 기반의 통합적 읽기 능력을 측정합니다.

3. 고3 학생들을 위한 구체적 학습 방법

1) 어휘·어법: '감'이 아닌 '문맥 속 의미'를 중심으로 학습해야 합니다. 기출과 모의고사에서 나온 단어의 뜻을 문장과 함께 외우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가령 '재다'와 같은 다의어는 여러 문장에서 쓰인 용례를 모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공언어, 표준어, 맞춤법 등의 규범 영역은 틀린 예문을 고치는 연습이 큰 도움이 됩니다.

예) 추천 학습 루틴: 하루 10분씩 어휘 퀴즈 풀기, 틀린 낱말이나 표현은 오답 노트에 정리하기, 국립국어원 예문 검색 자주 활용하기.

2) 독해: '글의 구조' 중심으로 읽고 요약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독해는 단순히 내용을 읽는 것이 아니라 글의 전개 구조(예: 비교, 인과, 대조 등)를 파악하며 읽어야 합니다. 수능 지문보다 길이가 짧고 내용도 단순합니다. 중심 내용을 파악하는 연습을 중심으로, 문단의 첫 문장, 글의 중심 문장을 파악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예) 추천 학습 방법: 지문 읽으며 문단마다 요약 한 줄 쓰기, 중심 문장과 보조 문장 구분하는 연습, 문제를 풀 뒤 틀린 지문을 다시 구조화해보는 복습.

3) 문학: 감성이 아닌 '패턴과 기법' 중심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문학 작품은 기본적으로 '구조(상황-정서-결심)'와 '표현 기법(비유, 대조, 공감각 등)'의 틀을 중심으로 감상해야 합니다. 특히 현대시는 화자의 정서, 상징적 표현, 시적 화법 등을 정확히 읽어내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예) 추천 학습 루틴: 시 한 편을 읽고 '주제, 정서, 표현 기법' 세 가지로 정리, 자주 나오는 표현 기법은 직접 예시를 만들어 연습하기, 시조는 해석을 중심으로 한 요약 + 주제 분석 반복.

4) 사고력·논리형 문제: '글쓴이의 생각 흐름'을 따라가며 읽습니다. 철학, 경제, 언어학 등의 설명문은 배경지식보다는 글의 논리 전개 방식(문제 제기→근거→주장)을 따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제-결론'형 문제의 경우, 결론이 도출되기 위한 조건이 충분한지를 따지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예) 추천 학습 전략: 어려운 지문은 문단마다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질문하며 읽기, 틀린 선지를 중심으로 '왜 틀렸는지'를 설명하는 자기 해설 만들기, 친구와 함께 오답 이유를 말로 설명해보는 토론식 공부도 효과적입니다.

5) 실전 대비 루틴: 기출 + 실전 감각 + 피드백 삼박자가 필요합니다. 매주 1회 실전 연습(25문제 풀기 → 오답 분석)을 하며 시험 감각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정답만 확인하지 말고, 자신이 왜 그 선지를 골랐는지, 어떤 사고의 오류가 있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4. 마무리 정리

이번 시험은 형식은 간결하나, 사고력과 언어 활용 능력을 평가하는 심층적 문항이 중심이었습니다. 따라서 단기간의 암기보다는 꾸준한 독해 훈련, 어휘 정리, 자기 해설식 공부와 성적 향상의 핵심 전략이 될 것입니다. "국어는 감으로 푸는 과목이 아니라, 구조와 논리로 푸는 과목입니다."